

## 내원자 설문조사

# “몸에 이상이 있어야 검사 해본다” 가 대다수

### 1. 서 론

질병의 조기발견과 사전 예방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강조되고, 2천년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보건·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세계적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도 많은 선진적 의료 정책을 결정, 추진하고 있다.

생활 향상과 더불어 국민들의 생각 역시 건강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해가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이러한 보편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민들의 보건·의료 수준이나 건강관리 참여도는 의외로 낮고 잘못된 판단하에

행해지는 경우도 많은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은 올바른 보건교육이 국민건강관리를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임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는 본회에서 실시한 내원자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평가해 봄으로써 향후 건강관리사업과 보건 계몽사업의 지침으로 삼고자 한다.

### 2. 본 론

본 설문조사는 '86부터 격년으로 실시되어 올해로 3번째를 맞는다. 본회 각시도지부 내원 검사자중 정상소견자와 유소견자 354명이 본 설문 조사에 응답하였다.

응답자중 정상자는 197명, 이상자는 157명이었으며, 연령분포를 보면 30세 이하가 11명으로 5.8%, 30대가 31명으로 4.6% 40대가 20명으로 4.0%, 50대가 180명으로 53.1% 60대가 15명 11.4%, 기타 97명 등으로 나타났다. 정상자와 이상자의 연령별 비율은 거의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건강에 많은 관심을 갖는 연령은 40대 이후인 것으로 나타내어 주고 있다. 이는 흔히 40대 이후에 암을 비롯한 각종 성인병이 발병한다는 것과 조기발견·치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결과인 것으로 보여진다.

내원자들이 건강검사를 하게 된 동기는 전체 응답자의 66%가 “몸에 이상이 느끼거나 건강에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대답해, 건

## “건강에 관심이 가장 많은 연령은 50대”

健協은 지난 5월 본회 각 시도지부에서 건강검사를 받은 내원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몸에 이상이 있어야”비로소 병원을 찾는 것으로 나타나, 질병환자의 양상에서 볼 때 올바른 보건교육이 시급함을 알 수 있었다. 여기서는 설문문의 주요내용을 정리함으로써 국민건강관리사업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편집자 주)

건강 검사가 질병의 예방을 위한 검사로서 충분히 인식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 건강검사가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97%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이것은 정기 건강검사의 필요성이 국민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평소 성인병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 가라는 질문에는 “가끔 생각해 본다”가 57%, “매우 심각하게 생각해 봤다”가 17%,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가 16%였으며 전혀 생각해 보지 않은 경우도 10%나 되었다.

앞의 세가지 설문문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 매우 대조적인 면을 발견할 수 있다. 즉, 경제발전과 함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건강검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아직까지 성인병이나 건강관리의 필요성을 심각하

게 생각하고 있지 않으며 왜 질병예방을 위한 건강검사가 필요한지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또 평소 자신의 건강에 대한 생각은, “건강하다”가 48%, “건강하지 못하다”가 42.4%, “매우 건강하다”와 “매우 건강하지 못하다” 각각 4.8%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정상소견자의 건강확신은 59.9%, 이상소견자의 건강확신은 34.9%로, 건강검사에 관련 없이 자신의 건강은 자신이 잘 알고 있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것은 올바른 보건교육을 통한 인식의 개선과 행동유발의 필요성을 시사해 주는 결과라 하겠다.

또, 응답자의 대부분이 주기적 건강검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그 기간은 연1회가 61%, 연 2회가 30.2%, 2년에 1회가 6.6% 등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앞에서 살펴본 인식정도에 관계없이 정기검사의 필요성이 나름대로 정착되어가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그중에서 연 2회의 검사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이상자의 비율이 더 높았는데 평소 건강하다고 생각하다가 우연히 자기의 유소견을 알게 됨으로써 건강검사 횟수 증가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균 연 1회의 검사가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나타냈다.

내원자들이 본회에서 건강검사를 하게 된 동기는 “친구 및 주위의 권유”에 의한 경우가 58.7%, “매스콤을 통해서”가 21%, “유인물·책자 등을 보고나서”가 7.6% 등이었다. 매스콤 홍보의 경우 폭넓은 대중 홍보가

## “많은 사람들이 치료기관으로 종합병원 선택”

가능하나 보다 효과가 있는 것은, 이미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을 통한 구전 홍보임을 여기서 알 수 있었다.

여기서 우리는 평소의 친절과 신속·정확한 검사가 건강 검사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구전 홍보를 통한 검사 활성화가 매우 중요한 것임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회에서 검사를 받은 유소견자가 결과 통보를 받은 후 사후조치로 “재검사를 받은 경우”가 36%,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경우”가 27.2%,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가 36%였다.

이중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그 이유는, “큰 이상이 아닌 것 같아서”가 48%, “경제적·시간적 이유”가 28%, “자각증상이 없어서”가 8% 등이었다.

과거의 설문과 비교했을 때, 경제적·시간적인 이유나 자각증상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줄어들었으나 '86년 각각 30.8%—특히 성인병의 대부분이 자각증상이 없이 진행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 부족하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또 이들이 재검사나 치료를 받기 위해 찾아가는 곳은 종합병원이 51%로 가장 높았으며 병·의원이 42%, 기타 의료원, 한의원 등이 6.8% 등으로 나타나 많은 사람들이 종합병원, 병·의원 등을 타 의료기관에 비해 신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회의 방문시 불편했던 점에 대한 질문에는 많은 사람들이 협회 및 건강에 관련된 유인물, 비디오 테이프 등의 홍보 자료 제작의 필요성과 함께 보다 다양한 홍보, 계몽 활동을

을 통해 전 국민이 건강검사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고 있다.

그 외에 본회에 대해 느낀점과 개선할 사항으로, 첫째 검사종목의 확대와 그에 따른 장비의 확보, 둘째 검사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상담, 셋째 직원의 친절 등을 지적해 주었다.

이 질문을 통해서, 그동안 본회에서 실시해 온 건강관리사업이 꾸준히 신뢰성을 확보해 오고 있으나 타 검사기관과 비교해 좀 더 다양한 검사 종목을 확대 실시해야 함을 절감할 수 있었으며, 이는 연차적 사업 계획에 따라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점으로 판단되었다.

### 3. 결 론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시스템의 발달로 국민들이 건강검사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나름대로 성숙되어가고 있다고 판단되어진 다.

그러나 이러한 여건을 활용하기 위해서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대 국민 보건교육임이 이번 설문을 통해 나타났다.

앞으로 본회에서는, 보다 나은 건강검사사업의 정착을 위해 계속 노력하면서 동시에 국민의 수준에 맞는 보건교육을 개발, 실시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또한 항상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로 일하기 위해 친절 교육도 적극 실시해야 할 것이다.